굴러온 '복덩이'… KIA 센터라인 완성

다시보는 KIA 2017 시즌
<8> 8번 타자 김민식

20승 투수 2명 배출 … 편안한 투수 리드
도루저지율 0.378 최상위급에 결승타도 펑펑
"풀타임 첫해 우승포수 돼서 영광이에요"

KIA 타이거즈의 'V11'을 완성한 마지막 퍼즐은 '안방마님'이었다.

2015년 '김기태호'가 처음 출항할 때 사람들의 눈길은 센터라인에 쏠렸다. FA로 고향으로 왔던 중견수 이대형이 kt 특별지명으로 이적을 했고, 내야의 두 축이었던 '키스톤 콤비' 김선빈과 안치홍은 군복무를 위해 팀을 떠났다. 그리고 고민 많은 포수진까지, 센터라인은 '김기태호'의 성패를 쥔 키였다.

김기태 감독의 세 번째 시즌이었던 올 시즌을 앞두고 센터라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호령이 리그를 대표하는 수비로 중견수 빈틈을 채웠고, 버나디나라는 특급 외국인 선수가 가세했다. 또 2년의 공백을 뒤로하고 김선빈과 안치홍이 복귀를 하면서 내야에도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센터라인의 중심이 될 포수 자리는 여전히 고민이었다. 김기태 감독이 고민 해결을 위해 선택한 카드는 트레이드였다.

KIA는 4월 7일 SK 와이번스와의 4대 4트레이드를 감행했다. '공격형 포수' 이홍구와 '외야의 신동력' 노수광과 윤정우, '베테랑 포수' 이성우를 내어주고 포수 김민식, 외야수 이명기, 내야수 노관현과 최정민을 받아오는 '깜짝' 트레이드였다.

김기태 감독이 가장 주목한 선수는 김민식이었다. 수비 강화를 위한 선택은 적중했다.

김민식은 시즌 초반 완벽에 가까운 도루저지로 상대의 발을 묶었다. 김민식의 어깨는 마운드 위 투수들에게 큰 힘이 됐다. 후반기 힘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김민식은 28차례 주자를 잡아내면서 0.378(허용 46개)의 도루저지율을 기록했다. 골든글러브 포수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린 6명의 선수 중 가장 높은 도루저지율이다. NC 김태군(0.367), 두산 양의지(0.321), 삼성 강민호(0.304)가 그 뒤를 이었다.

김민식은 4월 두 개의 결승타를 장식하기도 하는 등 KIA가 175일간의 1위 질주에 시동을 거는데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다.

생애 첫 풀타임 활약을 하느라 전반기와 다른 후반기였지만, 김민식은 센터라인의 중심을 잡은 우승 공신이다.

김민식은 "처음 KIA로 트레이드 됐을 때 기회가 더 많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게 될지 몰랐다. KIA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나하는 생각도 했다"며 기회의 2017시즌을 돌아봤다.

팀을 대표하는 새 얼굴이 되어 쉼 없이 달려왔던 2017시즌. 그는 시즌 마지막 순간도 장식했다.

1차전 패배로 시작됐던 한국시리즈는 KIA의 3연승 속에 5차전을 맞았다. 3회 터진 이범호의 만루포 등에 힘입어 7-0으로 손쉽게 우승으로 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김민식은 7-6까지 쫓긴 상황에서 9회말 수비에 들어가야 했다.

시즌 마지막 이닝,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이는 양현종이었다. 2차전 완봉승 이후 깜짝 등판이라 양현종의 컨디션은 완벽하지 않았다. 선두타자 김재환을 볼넷으로 내보내자 김민식이 마운드로 향했다. 그는 "대투수가 왜 쫄아요?"라며 웃었다. 괜찮다며 공이 좋다고 양현종의 긴장감을 덜어준 그는 이후 9회 2사 만루에서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하는 마지막 공을 직접 처리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짜릿했던 우승 순간이었다.

김민식은 "2차전, 5차전 9회에 정말 긴장을 했었다. (양)현종이 형 공이 시즌만큼 좋지는 않았다. 9회 많이 던지면서 힘이 떨어지고 (2차전 마지막 타자였던 양의지의) 타이밍이 맞아갔다. 5차전 마지막에도 정말 긴장됐다. 공이 높게 뜨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한참 있다가 내려오는 느낌이었다. 올 시즌 가장 어려운 포수 파울플라이를 잡았다(웃음)"며 "풀타임 첫해인데 우승포수가 돼서 영광이다"고 말했다.

'우승포수' 타이틀을 얻었지만 쉼 없는 김민식이다. 타격 강화를 위해 마무리캠프를 자처했던 김민식은 챔피언스필드에서의 자체 동계 훈련도 시작했다. 또 다른 영광의 순간을 그리고 있는 복덩어리 김민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민식 월별성적

구분	경기	타수	타율	득점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	타점	볼넷	삼진
3~4월	22	56	0.232	6	13	2	0	0	7	5	11
5월	26	78	0.218	8	17	1	1	1	9	5	13
6월	24	63	0.222	11	14	1	0	2	10	9	10
7월	21	58	0.172	6	10	2	0	1	8	2	13
8월	19	45	0.222	4	10	1	1	0	2	3	5
9월이상	25	52	0.269	4	14	2	0	0	4	2	3
종합	137	352	0.222	39	78	9	2	4	40	26	55

양현종 트리플크라운 달성할까 … KIA 황금장갑은 몇개?

'2017 타이어뱅크 KBO 시상식'에서 MVP를 수상한 KIA 양현종. 〈KIA 타이거즈 제공〉

오늘 골든글러브 시상식
KIA 11명 후보에 올라

프로야구 2017시즌을 갈무리하는 황금 잔치가 벌어진다.

'2017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3일 오후 5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에서 개최된다.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로 무대에 오를 주인공은 모두 10명. 각 팀을 대표해 맹활약을 한 85명의 선수가 10개의 골든글러브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투표는 이미 끝났다. 올 시즌 KBO리그를 담당했던 취재기자와 사진기자, 중계 담당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8일 투표를 마감했다.

가장 기대되는 이름은 KIA 양현종이다.

리그 사상 처음으로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MVP를 동시에 석권한 양현종은 매일같이 트로피를 수집하고 있다. 각종 시상식의 대미를 장식할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양현종은 생애 첫 골든글러브이자 트리플크라운을 겨냥하고 있다.

올 시즌 '챔피언' KIA가 몇 명의 수상자를 배출할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KIA에서는 양현종을 필두로 헥터·팻딘(이상 투수), 김민식(포수), 안치홍(2루수), 이범호(3루수), 김선빈(유격수), 최형우·버나디나·이명기(이상 외야수), 나지완(지명타자) 등 11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최형우의 2년 연속 수상이 유력시되는 외야는 최고의 격전지다. 타이거즈 외국인 타자 역사를 바꾼 버나디나와 함께 박건우(두산), 손아섭(롯데) 등 리그를 대표하는 외야수들이 주인공을 꿈꾸고 있다. 넥센 이정후는 11년 만이자 1992년 염종석, 1994년 김재현, 2006년 류현진에 이어 역대 4번째 고졸신인 수상을 노린다.

'타격왕' 김선빈은 생애 첫 골든글러브 수상을 놓고 넥센 유격수 김하성과 경쟁 구도를 형성했고, 2루에서는 안치홍과 박민우(NC)이 대결을 하고 있다. 파워를 앞세운 나지완은 박용택(LG)의 정교함에 도전한다.

한편 2017 사랑의 골든글러브상 수상자는 롯데 신본기가 선정됐다. 지난 1999년 제정된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은 봉사와 기부 활동 등 각종 선행에 앞장서고 있는 KBO 리그 선수 또는 구단에 수여된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지상파 KBS 2TV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탠턴 양키스 이적
저지와 괴력의 쌍포

올해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MVP) 장칼로 스탠턴(사진)이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뉴욕 양키스로 이적하면서 에런 저지와 더불어 역대급으로 평가받는 쌍포가 탄생했다.

스탠턴은 올해 정규리그에서 홈런 59개를 쳐 NL 1위를 차지했다. 괴력의 신인 저지도 52개를 쳐 아메리칸리그 홈런 1위의 영예를 안았다.

키 198㎝의 스탠턴과 2m1㎝의 저지는 엄청난 홈런을 양산할 괴력의 조합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는다. 둘 다 오른손 거포여서 양키스타디움의 홈런존도 바꿀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양키스타디움은 왼손 장거리포에게 유리한 구장으로 유명하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가 뉴욕에서 큰 인기를 끈 덕분에 양키스는 1923년 양키스타디움을 신축 개장했다. 실제 많은 돈을 벌어다 준 루스 덕분에 새 구장을 짓기도 했고, 루스가 이 구장에서 대포를 양산해 양키스타디움은 '루스가 지은 집'으로 불렸다.

이 구장의 특징은 우측, 우중간 펜스가 좌측, 좌중간 펜스보다 짧은 비대칭 구장이라는 점이다. 루스와 같은 왼손 타자가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스탠턴과 저지 이전에 양키스 최강의 쌍포로 불린 로저 매리스와 미키 맨틀은 1961년 각각 홈런 61개, 54개를 날렸다. 매리스는 왼손 타자였고, 맨틀은 오른손과 왼손을 다 치는 스위치 타자였다. 둘은 오른쪽 펜스가 짧은 양키스타디움의 이점을 톡톡히 누렸다.

2009년 새로 개장한 양키스타디움도 이전 구장과 규격이 똑같다. 홈에서 왼쪽 펜스까지 거리가 97m이고, 좌중간 122m, 가운데 펜스 124m, 우중간 117m, 우측 펜스 96m 순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짧아진다.

지금도 왼손 타자들이 선호하는 구장이지만, 스탠턴과 저지의 결합으로 이제 양키스 홈런의 절반 이상은 왼쪽 또는 좌중간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상호 스키 사상 최초
월드컵 금메달 도전

'배추 보이' 이상호(22·한국체대)가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월드컵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상호는 1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카레차에서 열리는 2017-2018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알파인 남자 평행대회전(PGS) 월드컵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2017-2018시즌 스노보드 월드컵 알파인 개막전이다.

이상호는 올해 2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회전과 대회전에서 2관왕에 올랐으며 3월 터키에서 열린 월드컵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아시안게임 스노보드 종목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 금메달을 따냈고,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월드컵 메달리스트가 됐다. /연합뉴스

TV 시청자 제보 벌타 폐지
골프 규정 내년부터 바뀐다

TV 중계를 보던 시청자 제보로 선수의 규정 위반이 적발되고, 이것이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2018년부터는 사라진다.

국제 골프 규칙을 제정하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R&A는 11일(현지시간)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골프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시청자의 제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선수의 규정 위반을 적발, 해당 벌타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일반 시청자들의 제보로 인한 벌타 부과는 최근 몇 년간 골프계에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모든 조에 경기위원들이 따라다닐 수 없으므로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는 TV 중계 화면이나 일반 갤러리가 찍은 영상 등을 통한 제보도 판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USGA와 R&A는 새해부터 시청자 제보를 받지 않기로 하는 대신 한 명 이상의 경기요원을 모니터 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또 이때 쓰는 모니터 대상은 대회 공식 중계사가 제공한 화면으로 한정하며 갤러리 등 개인이 별도로 촬영한 영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연합뉴스